

선박보험료와 선원임금 상승으로 선주 부담 가중

전체적으로 선박보험료 전년비 평균 10.6% 증가



선박보험료와 선원임금 상승으로 선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영국계 회계컨설팅사인 Moore Stephens International이 지적했다.

홍콩 대공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연례 보고서인 'Opcost'를 통해 2005년 선주의 전체 운영비용 증가율이 4%에 달했으며, 이는 2004년의 12%에 비해서는 크게 축소됐으나 시황 등을 고려할 때 선주들에게 큰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보험비용 증가폭이 다소 완화됐으나 그 혜택을 입은 선종은 로로선이나 파나막스, 원유 운반선 등으로 제한됐으며,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평균 10.6%의 보험료를 더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화물선의 보험료 지출은 31%의 놀라운 상승폭을 나타냈고, 수에즈막스 유조선과 컨테이너선, 냉동선 등도 14% 이상의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과거 해운 보험업계 내의 치열한 경쟁으로 보험료가 크게 하락했었는데, 근년 들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선박용 윤활유 구입비용도 평균 9%의 상승폭을 나타냈고, 선원 임금 지불에 따른 지출도 9.2%나 올랐다.

보고서는 그러나 컨테이너선의 경우 2005년도 운영비용 지출 분야에서는 운이 좋은 편에 속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양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은 선원 임금이나 선박용 윤활유 부분에 대한 지출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것이다.

선박 수리 비용에서는 컨테이너선이 19%, 건화물선이 2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의 데이터는 Moore Stephens의 고객사인 3개 선주, 1,300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집계됐다.